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양돈업계의 대응 기민한 대처로 산업피해 최소화

멕시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항만을 이용하는 출입국자를 격리조치 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H1N1)는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에서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이며, 1918년 5천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스페인 독감'의 주범이었다. 또한 돼지에서도 발병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2003~2004년 발생 이후 2006~2007년과 2008년 세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동안 양계업계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사태를 수습하는데 급급했다. 이러한 우리 업계의 노력이 터를 닦아주어서 일까? 양돈업계는 반드시 필요한 요구와 주장을 통해 1주일도 경과하지 않아 사태를 수습했다.

지난 4월말 멕시코에서 수백명의 감염자와 함께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당시 전 언론에서는 멕시코에서 '돼지독감'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해 양돈업계를 긴장시켰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재현하는 듯한 예고편이었다. 하지만 양돈업계에서는 명칭변경 요구부터 소비홍보행사까지 정부와 협력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갔다. 전 세계에서 양돈업자들도 들고 일어났다. 심지어 이집트 정부에서는 전국의 30만 마리 돼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하면서 양돈농가들이 격렬한 시위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결국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공식 발표하면서 빠르게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돼지독감"이→SI→MI→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바뀌었으며 언론에서는 '신종플루'로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면서 급락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가격도 정상을 되찾았다. 4월 25일 처음 인플루엔자가 보도되기 전 kg당 4,930원 하던 돼지고기(지육) 가격이 일주일 만에 kg당 3,746원으로 20% 이상 가격이 하락했던 것이 명칭을 변경한 5월 1일 반등을

시작해 현재는 예전 수준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03년 이후 발생되었던 HPAI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조류독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시로 바꾸는데 수 개월이 걸렸으며, 이마저도 당시의 파급효과로 인해 아직도 '조류독감'을 사용하는 언론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 A가 어떤 형태로 세계를 공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여하튼 양계에 이어 양돈분야에도 인플루엔자의 공포가 드리워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돈업계의 힘과 대처방법을 우리 양계업계도 충분히 분석,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란, 닭고기 가치 더 올려야 한다 자조금 사업을 통해 입지 높여야

최근 계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물론 생산자 가격은 현장 할인(DC)가격을 제하면 이익이 크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난가가 특란기준 165원(5/18)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147원으로 시파동 이후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올랐을 당시와 2008년 12월 사료가격 상승으로 159원까지 치솟았을 때 보다 높은 가격이다. 육계가격 역시 사료가격 상승으로 1월에 kg당 2,400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2,200원을 유지하는 등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가격 상승은 신종 인플루엔자 A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도 영향이 있었으나 2006년 12월 이후 2년 가까이 치솟은 사료가격에 기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란과 닭고기는 그 가치에 비해 평가절하를 당해 왔던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높게 형성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물의 가치와 물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닭고기와 계란은 최저의 생산비와 유통마진으로 최대한의 단백질과 영양소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범 산업이다. (사)한국물가정보에 의하면 지난 1970년 계란 1개의 소비자 가격은 14원이었으며 닭고기는 kg당 210원이었다. 이것이 35년이 지난 2007년에는 계란이 200원, 닭고기가 3,400원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14~16배에 불과하다. 이는 담배가 250배, 시내버스 요금이 100배, 자장면이 32배 인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같은 축산물에 비해서도 쇠고기 80배, 돼지고기 32배에 비하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비율로 올랐다면 계란은 개당 490원, 닭고기는 6,720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생산액을 보면 농산물 중 닭고기가 1조원으로 5위, 계란이 8천5백억원으로 7위에 마크되어 있다. 이 계산방식은 품목별 생산양에 생산자 가격을 곱한 것으로 일종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 같은 양을 생산했다면 생산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역으로 닭고기와 계란이 타 축산물과

함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단연 생산액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양계산물의 가치를 높일 때이다. 자조금 사업을 통해 양계산물 가치를 높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환경에 맞는 양계 기술 및 대책

인류는 태초부터 날씨와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뛰어놀던 중생대의 공룡들이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멸종되는 사태를 가져오기도 했다.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후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최근의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며, 대륙이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해볼 수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최근의 지구 온도는 100년간 1.5℃ 정도 상승하였으며, 향후 100년 내에 지구 기온이 약 4℃ 상승하면 해수면이 59cm가 상승하여 해안에 위치한 대다수의 도시가 바닷물에 잠긴다는 보고서를 내 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공해로 인해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부산항의 해수면이 지난 30여 년간 8~9cm가량 상승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으며, 제주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연간 0.5cm씩 지난 43년간 21.9cm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각종 심포지움을 통해 연구와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아열대, 즉 월 평균기온이 10℃이상인 달이 한 해에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후가 찾아 올 수 있다고 국립축산과학원은 예견하고 있다.

우리 양계분야도 기후 변화에 따른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본다. 온도가 상승하면 기존의 계사시설로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질병도 발생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난화 뿐 만 아니라 각종 공해로 인해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여름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계사의 침수 및 유실,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계사가 붕괴되기도 한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겠지만 근래 들어 이러한 빈도는 잦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즉, 기후의 변화로 인한 피해는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다. 당장 올 여름 더운 날씨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높게 유지될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양계분야에 있어서 기후의 변화가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며,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양계**